

# 북한 양돈기반 조성사업 현장을 가다

박기진 주임  
(사)대한양돈협회



▲ 지난 3월 9일 북한 금천리 농장에 남북 공동 영농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종돈 56두가 수출되었  
다. (사)통일농수산 사업단, 국내 양돈 관계자와 북한 양돈 관계자들과의 입식 기념촬영

다. 이번 사업은 2005년  
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사람들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 양돈산업의 생산성  
을 높여 국내 양돈산업  
과의 협력을 도모함에  
있다.

## 1. 성북리 양돈장

성북리 양돈장은

2005년도에 완공 후 (주)  
다비육종이 용돈 2두 후

양돈기반조성사업에 일환으로 (주)다비육종(대표 윤희진)에서는 지난 3월 9일 북한 금천리 협동농장에 우수한 혈통과 유전자를 지닌 종돈 56두를 수출을 통해 후보돈을 입식하게 되었다. 이번 수출은 2005년 10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남북 공동 영농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사)통일농수산사업단의 요청에 (주)다비육종이 흔쾌히 승낙하여 이루어졌다. 북한 2차 종돈 수출은 작년부터 북한 측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했지만 북한 핵실험으로 연기되었다가 최근 방북길이 열려 가능하게 되었

모든 24두를 비롯해 총 26두 지원을 시작으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50두 규모의 농장으로 성장하였으며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성적 또한 우수하게 유지하고 있다.

방역관리 역시 국내에 어느 농장과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방문자들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방역을 하고 있었다. 농장시설은 국내시설에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전혀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분뇨처리 시설은 국내

양돈산업의 초창기 시절처럼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저장조를 만들어 분뇨를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워낙 농사에 필요한 비료가 부족해 저장조는 보름도 되지않아 바닥이 난다고 한다.

## 2. 금천리 양돈장

이번 양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입식을 한 농장으로 성북리 양돈장에 비해서는 시설적인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총 500두 규모의 농장으로 현재는 분만사가 공사중에 있었다. 성북리농장이 최신헌기시설로 지어졌지만 전력공급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비추어 자연환기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난방시설 역시 연탄난로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천리 양돈장에는 이번 후보돈 25두, F1 25두, 웅돈 6두(듀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각2두)가 입식되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돼지들은 30~40kg 육성돈 시기에 삼일포 양돈장으로 이동한다.

국내와 달리 인력수급에 문제는 크지 않아 500두 규모에 직원이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 3. 사료지원

2005년부터 도드람양돈조합은 북한 성북리, 금천리 양돈장에 일주일에 한번씩 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입식과 맞추어 사료 150포가 들어왔다. 예전 잔반으로 사육시에는 220일경 50~60kg 대로 출하를 하며 생산성이 떨어졌으나 사료급여 이후 국내와 비슷한 수준인 180일경 100kg대에 출하를 하고 있었다.

북한 양돈 관계자는 “처음에 남한 돼지를 보고 물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예전에 비해 효율적



▲ 성북리 양돈장에 농장 입구 모습



▲ (주)다비육종의 종돈들이 북한 금천리 양돈장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 종돈 56두가 입식을 위해 금천리 양돈장에 들어오는 모습

인 관리로 두배로 생산성이 높아져 일하는 것도 즐겁다.”며 소감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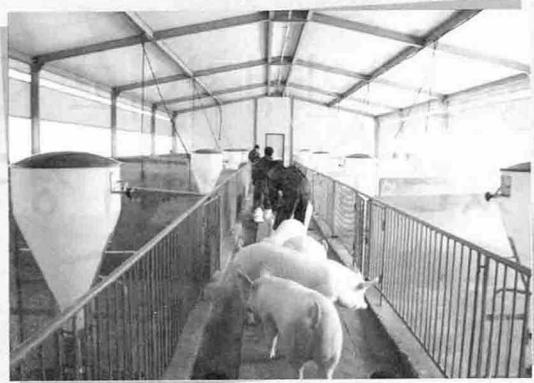
▲ 김준영 수의사(사진 맨 왼쪽)가 성북리 양돈장 직원과 전산 기록을 살피고 있는 모습



▲ 이번 금천리 양돈장에 입식한 종돈 56두에 대한 사양관리 및 전산관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 4. 지속적인 기술지원 필요

돼지와 사료지원외에도 북한에 양돈관련 기술이 부족해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준영 수의사는 “북한은 풍부한 인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기술보급으로 북한이 자립심을 갖고 생산성을 증대시켜 북쪽 사람들의 식생활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언젠가 국내 양돈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로서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영 수의사의 꾸준한 컨설팅과 기술지원으로 성북리 양돈장은 현재 국내 양돈장에서도 높은 수준인 MSY 22두의 성적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양돈장으로 발전했다.



▲ 북한에서는 전기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천리 농장 돈사안에는 전기시설 자체가 없이 설계되었다.



▲ 성북리 양돈장은 환기시설과 전열시설이 국내 못지 않게 갖춰져 있지만 전력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5.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 양돈산업

열악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북한 양돈관계자들은 양돈기반 조성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양돈기술은 거의 무지에 가깝지만 배우려는 열의는 무척 높아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 또한 북한은 풍부한 토지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어 양돈 기술 지원, 협력을 통해 일정수준에 도달한다면 우리 양돈산업의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양돈기반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양돈**